

TV 드라마 주인공 직업의 변화가 스토리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TV Drama Main Character Job on Story

노동렬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Dong-Ryul Roh(rohdah@hanmail.net)

요약

방송 드라마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남녀주인공의 직업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점차 전문직이나 전문경영인, 그리고 경찰 등의 특수 직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성 간의 사랑 중심 스토리에서 남자주인공의 직업 중심 스토리가 핵심이 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드라마에서 직업이 드라마 스토리의 단순 배경으로 기능한 반면, 최근에는 세세하게 묘사되는 직업의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구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멜로 장르의 드라마가 주류를 이루던 방송드라마 환경이 점차로 전문직업을 소재로 한 장르적 특성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드라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특정 직업 세계에 대한 작가의 전문성과 이를 토대로 한 논리적 내러티브 구성과 치밀한 영상처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현실감을 제공하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 **중심어** : | 전문직업 | 장르드라마 | 갈등 | 전문성 | 현실감 |

Abstract

Reflecting times, Korean TV dramas have gone through massive changes. So have their main characters. This study is about their jobs, which have become more professional as well as diverse. It is observed that the male characters' jobs and job-related episodes take the center stage in the stories of dramas, rather than love stories of those characters. While main characters' jobs used to be part of the overall backdrop in the past, it has been the latest trend for a drama to begin building conflicts around and in the meticulously described work settings. This is opening up the possibility for new categories of genre dramas, as opposed to the typical Korean melodramas. For further success of this newly burgeoning trend, the sense of reality matters the most. Then, it requires elaborately built narratives, based upon a high level of expertise of playwrights in the relevant fields, and realistic proper image processing techniques.

■ **keyword** : | Professional Job | Genre Drama | Conflicts | Specialty | Realistic Visual Image |

I. 문제제기

미디어와 방송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방송콘텐츠는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방송콘텐츠와 사회의 변화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방송콘텐츠

* 이 논문은 2015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7년 11월 14일

수정일자 : 2017년 12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2월 13일

교신저자 : 노동렬, e-mail : rohdah@hanmail.net

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에 의해 시청자들에게 평가를 받게 된다. 현실을 직시하도록 강조하거나,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더라도 시청자들이 꿈꾸는 희망을 이루어주거나, 좌절에 빠진 시청자들에게 꿈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방송콘텐츠이다. 특히 드라마는 이러한 역할을 스토리 구성을 통해 현실감을 더욱 증폭시켜 전달하는 장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토리를 구성하는 출연자와 사건, 소재 등과 같은 각각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로서의 드라마에 대한 연구는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오고 있다. 드라마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연구, 드라마 내용에 투영된 성역할(sex role)의 문제, 페미니즘 시각에서의 드라마 내용 분석 등이 주류 연구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 자체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부족한 편이다. 드라마 갈등 변화나 직업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나 정체성에 대한 표현 방식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드라마는 사회를 반영하기 위해서 각 시기마다 가장 대표적인 표상이나 도구들을 선택하고 그것이 지니는 시대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주제 부각을 극대화하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인공의 직업은 드라마의 주제와 사회의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도구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드라마 주인공의 직업 변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주인공 직업 변화를 통해 사회의 변화 양상을 연구했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주인공의 직업이 드라마의 주제 부각이나 스토리 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주인공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지 여부는 작가가 드라마의 분위기와 장르, 그리고 스토리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만큼 작가는 주인공 직업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스토리를 전개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주인공 직업의 변화는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를 다루는 방식에서부터 드라마 장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본 연구는 우리 드라마 발전 과정

에서 주인공 직업 변화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향후 드라마의 발전 방향과 품질 향상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논의

드라마와 직업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져왔다. 드라마에 나타난 직업의 성 역할과 성 정체성에 관한 연구[1-9], 드라마가 반영하는 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10][11], 그리고 질병이나 전문 직업을 다루는 드라마의 특징[12][13] 등이 드라마에 대한 연구에서 직업을 다루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드라마가 현실세계를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와 드라마 내용이나 형식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 이미지에 대해 고정관념이 어떻게 재생산되고 사회화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는 사회의 경제적 성숙 과정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과의 연계 속에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적극적·공격적·권력적으로 묘사되는 남성 이미지에 비해 순종적·의존적으로 묘사되는 여성 이미지[14]는 성 정체성의 이분법적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산업사회의 발달 과정에서 남성은 가치 있는 경제생활을 담당하고 여성은 무보수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것을 효율적인 투자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강조[8][15]하면서, 방송 드라마는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확대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라마에서 여성은 현모양처를 강요[11]받게 되고, 남성이 여성의 역할을 하는 태도는 규제받는 것[16]으로 그려진다.

드라마가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를 재생산한다는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변인 중 하나는 성별에 따른 직업의 분포와 직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다. 드라마는 성 역할의 정형화는 물론 직업에 대한 선호도와 고정관념을 재생산[1][8][12] 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특히 성차이에 따른 직업 분포에서 나타나는 연구결과들은 가정의 범주를 벗어난 사회적 영역에서의 성역할 구분에

주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주로 드라마 속 직업의 세계는 남성의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평등한 분포로 그려진다. 여성에 비해 남성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드라마 속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으로 인식되는 직종에 종사[8]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반대로 실제와는 다르게 드라마 속 여성들이 전문직 또는 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과장되어 있다는 연구결과[17]도 제시되고 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직업은 드라마 전체 배경과 분위기 조성에 기능하면서 배역의 캐릭터 구체화에 영향을 미친다. 직업에 대한 인식은 직업인에 대한 성격과 이미지, 수입 등에 대한 고정관념을 구축하기도 한다. 드라마제작자들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차용하기도 하고 전복시키기도 하면서 주인공 캐릭터를 결정하고 스토리를 구축한다. 특정 시대에 각광받는 직업을 드라마에 그려냄으로써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면서 시청자들로부터 동경심을 자극한다. 관심을 필요로 하는 방송드라마에서 시청자들의 주목을 끌어들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새로운 직업을 배경으로 스토리를 전개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로운 직업은 새로운 스토리를 제공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방송드라마에 나타난 직업에 대한 연구는 젠더 연구의 영역과는 별도로 진행될 가치가 있다. 한류 드라마 시대를 지내고 있는 우리 방송 환경에서는 드라마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소재와 장르를 계속해서 발굴해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방송드라마 제작기술이 평준화한 시대에 소재와 표현 방식에서의 창의성은 우리 방송드라마의 지속적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드라마가 현실 사회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함께 드라마가 현실 사회 구성요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차용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우리 드라마 자체에 대한 연구에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 방송드라마에 나타나는 직업의 변화 양상과 그 기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드라마가 사회를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드라마가 구성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

는 일이다. 또한 드라마의 장르와 소재 변화에 직업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방송드라마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판단한다.

I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본 연구는 방송드라마의 남녀주인공의 직업 변화 양상과 직업의 변화가 드라마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인식되고 있는 드라마가 주제와 소재로 선택한 스토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어떤 직업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연구와 그러한 변화가 드라마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영화와 마찬가지로 드라마에는 다양한 장르가 존재하고, 장르마다 각기 다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멜로드라마, 액션드라마, 범죄수사드라마, 스릴러와 미스터리, 의학드라마, 판타지드라마 등은 각기 다른 스토리텔링 방식과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드라마 장르의 이러한 특징은 표현하기 유리한 직업과 단점이 많은 직업들을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일반화나 표준화하기는 어렵지만,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구조에서 사랑이나 사건사고의 표현을 더욱 효과적으로 극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드라마 속에 나타난 직업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를 연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 드라마 속 남녀주인공의 직업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 직업이 드라마 구성이나 내용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위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청률 조사가 시작될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방영된 드라마 중에서 매년 시청률 상위 5위 이내를 기록한 125개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시청률은 AGB닐슨 자료와 각 연도별

지상과 프로그램 시청률 결산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선정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남녀주인공 2~3명의 직업(총 276명의 배역)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집중하는 것은 직업이 드라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으므로, 출연자 전원의 직업분포보다는 남녀주인공의 직업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직업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1992년~1999년, 2000년~2009년, 2010년~2014년까지의 시기를 구분하였으며, 이는 드라마 발전 과정에서 직업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선정하거나 우리 방송드라마의 발전에 대한 검증된 기준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직업 분석은 드라마의 기획안에 나타난 스토리와 등장인물 소개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대본 1~2회의 내용분석을 병행하였다. 직업 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의 분류 검색을 토대로 하였으며, 양문화·강형철(2005)의 연구에서 활용한 17개의 직업 분류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14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드라마 세부 장르에 따른 주인공의 직업 분포 분류는 김순기(2010)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IV. 연구결과

1. 직업을 가진 생활인에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변화

시대별 시청률 상위 드라마의 남녀주인공 직업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전문직업이 다양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도, 직업을 가진 생활인의 모습을 그리는 수준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직업의 세계를 묘사하면서 사건과 갈등을 그려내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별 시청률 상위 드라마에 나타난 남녀주인공 직업 분포 변화는 [표 1]의 내용과 같다. 여자주인공의 직업 분포는 남자주인공의 그것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대별로 여자주인공의 직업은 11~12종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에 비해, 남자주인공은 9종에서 7종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자주인공의 직업분포에서 전업주부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전문직 종사자 비율은 2010년대를 제외하고는 20% 이상으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예인/예술인/체육인 항목에서 남자주인공에 비해서 여자주인공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남녀주인공 모두 무직자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과 2010년대 서비스/일용직/아르바이트 항목이 남녀주인공 모두 현저히 증가한 결과도 드라마가 시대를 반영하는 현상에 대한 반증이라 하겠다.

표 1. 시청률 상위 5위 드라마 속 남녀주인공 직업 변화

(단위: 명, %)

직업군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문 관리 경영	전문직 (의사, 법관, 교수, 언론인등)	9 (21.9)	10 (22.1)	12 (21.4)	11 (19.6)	5 (13.5)	16 (39.0)
	재벌/대기업/경영진	1 (2.44)	6 (13.3)	1 (1.7)	14 (26.0)	2 (5.4)	5 (12.2)
	중간관리자 (실장, 부장, 과장)	1 (2.4)	3 (6)	0	2 (3.5)	1 (3.7)	0
	중소기업 경영진	0	1(2.2)	0	0	0	0
	소계	11 (26.8)	20 (45)	13 (23.1)	27 (49.1)	8 (21.6)	21 (51.2)
그 외	하급관리(팀장, 대리) 이하	5 (12.2)	5 (11.1)	8 (14.2)	5 (8.9)	2 (5.4)	4 (9.8)
	소규모 자영업자	1 (2.44)	4 (8.8)	2 (3.5)	0	0	3 (11.5)
	경찰/군인	0	2 (4.4)	1 (1.7)	4 (7.1)	2 (5.4)	6 (14.6)
	연예인/예술인/체육인	9 (21.9)	5 (11.1)	3 (5.3)	5 (8.9)	7 (25.9)	1 (3.8)
	교사/교직	1(2.4)	0	1(1.7)	0	0	0
	프리랜서	0	0	1(1.7)	3(5.3)	2(5.4)	0
	전업주부	2 (4.9)	0	6 (10.7)	0	3 (8.1)	0
	서비스/일용직/ 아르바이트	2 (4.9)	0	4 (7.1)	5 (8.9)	7 (18.9)	5 (19.2)
	학생	3 (7.32)	0	7 (12.5)	3 (5.3)	1 (3.7)	0
	무직(명퇴, 은퇴 포함)	4 (9.76)	1 (2.2)	7 (12.5)	4 (7.1)	2 (5.4)	0
	분석불가	8 (19.5)	8 (17.8)	3 (5.3)	0	3 (8.1)	1 (3.8)
	소계	30 (73.2)	25 (56)	43 (76.2)	29 (50.6)	29 (78.4)	20 (48.8)
	합계	41 (100)	45 (100)	56 (100)	56 (100)	37 (100)	41 (100)

여자주인공의 전문직 비율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높은 비율을 유지하였지만 2010년대에는 현저하게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연예인/예술인/체육인 항목의 비중은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1990년대에는 전문직 종사 여자주인공이 다수 등장하지만 간혹사

나 치위생사 등이 많았던 반면 남자주인공의 경우에는 검사나 의사가 대다수로, 실질적으로 전문 직종 내에서도 성 차이에 따른 계급차가 존재하였다. 또한 하급관리자의 경우에도 여자주인공은 비서나 경리가 포함된 반면에 남자주인공은 대부분 신입사원, 평사원이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광고대행사, 여행사, 국제변호사, 케이블TV 사장, PD, 방송작가, 항공기 조종사 등의 전문 직업군이 드라마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1992년 방송된 <질투>로부터 트렌디드라마 장르가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드라마에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당시 젊은 층에 각광받기 시작한 전문직업군을 드라마에 흡수하면서 발생한 현상이지만, 전반적으로 전문직업의 세계를 드라마에 본격적으로 그리지는 못했다. 당시 유행하는 전문직업은 남녀주인공들이 멜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뿐,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서로 얽히면서 갈등을 조성하는 기능을 해내지는 못했다.

[표 1]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직과 경영관리, 및 문화예술 관련 직업을 별도로 종합한 [표 2]의 내용을 참고하면, 2000년대 남자주인공들도 대부분 전문 관리경영 분야에 종사하였고, 그 중에서도 재벌 2세와 같은 기업 후계자나 대기업 임원 혹은 의사나 검사 등 경제적으로 상위층에 속하는 직업이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건축가, 광고회사 AE 등과 같이 특화된 직업이 여전히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여자주인공의 경우에도 전문직이나 하급관리, 평사원, 교사 그리고 예술인 등 다양한 직업분포는 물론 방송작가, 외교관, 골프선수, 메이크업아티스트, 디자이너 등 특화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과거에 가부장적인 남성에 종속되어 온순하며 순종적인 성향을 띤던 여자주인공이 다수를 이루었다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명랑소녀성공기(2002)>, <인어아가씨(2002)>, <군세어라 금순아(2005)>, 그리고 <열아홉 순정(2006)> 등에서와 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도 발랄하고 유쾌한 성향을 띤 여성캐릭터들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캔디형’의 성향을 나타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신데렐라형’의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표 2. 시대별 전문직·경영관리 및 문화예술 관련 직종 종합 (단위: 명, %)

직업군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문직 재벌/대기업/경영진	10 (24.4)	16 (35.4)	13 (23.1)	25 (45.6)	7 (18.9)	21 (51.2)
경찰/프리랜서 연예인/예술인/체육인	9 (21.9)	7 (15.6)	5 (8.9)	12 (21.4)	11 (29.7)	7 (17.1)
합계	19 (46.3)	23 (51.0)	18 (32.0)	37 (67.0)	18 (48.6)	28 (68.3)

2010년대에는 전문직 종사 여자주인공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연예인/예술인/체육인 항목에서 현저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이전까지의 드라마가 전문직 남녀주인공 간의 스토리를 그려왔다면, 2010년대 드라마들은 전문직 남자주인공과 문화예술계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여자주인공 간의 스토리가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크릿 가든(2011)>의 스티븐우먼 길라임, <넝쿨째 굴러온 당신(2011)>의 드라마 제작PD 차윤희, <별에서 온 그대(2014)>의 톱 여배우 천송이, <미세스 캅(2015)>의 최영진, 그리고 <태양의 후예(2016)>의 강모연 등과 같이 배우, 가수, 드라마 PD, 큐레이터 등의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여자주인공과 경찰이나 스티븐우먼과 같이 활동적인 여자주인공이 증가한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특히 이전 시기의 드라마들과 다른 특징은 다양한 전문직업 분야의 등장 이 드라마의 배경 설정 기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스토리를 전개하는 직접적 도구로 활용되면서 직업의 세계가 자세하게 묘사되고 그 과정에서 사건과 갈등이 생성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도구로 기능한다는 사실이다. <제빵왕 김탁구(2010)>의 제빵사, <시크릿 가든(2011)>의 백화점 사장 김주원, <내 딸 서영이(2012)>의 패션그룹 사장 강우재, <최고다 이순신(2013)>의 기획사 대표 신준호, <프로듀사(2015)>의 PD 라준모와 백승찬, <펀치(2015)>의 검사 박정환과 이태준, <태양의 후예(2016)>의 유시진 등은 모두 직업인으로서의 임무 수행 과정이 드라마의 갈등요인으로 기능하면서 직업의식 반영과 직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였다.

<제빵왕 김탁구>는 뛰어난 후각을 갖고 태어난 김탁

구가 제빵업계 1인자로 성공하는 과정에서 맞이하는 다양한 시련을 드라마의 메인 갈등으로 그렸고, <시크릿 가든>은 남녀의 영혼이 바뀌는 판타지 로맨스 장르의 드라마이면서도 무술감독이 되고 싶은 여자주인공의 스타트 직업 세계를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자주인공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받는 장면이 세세하게 묘사되었다. 방송사 예능국 이야기를 소재로 한 <프로듀사>는 “시청률의 이해”, “예고의 이해”, “장수프로그램의 이해” 등의 소재목을 활용하면서 PD와 작가들의 일과 갈등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표현하면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시한부 인생에 처한 검사가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업무를 통해 검찰과 정치권의 비리를 고발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스토리를 그린 <편지>는 남자주인공의 직업 자체로부터 드라마의 주 갈등을 구축하면서, 직업과 갈등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2010년대에 드라마가 직업의 세계를 진지하게 그려나가는 데는 광고의 영향이 직접적이었다. 우리 방송광고 정책은 2010년에 접어들면서 획기적인 변곡점을 맞이하였다. 2010년에 간접광고가 허용이 되었고, 2011년도에는 방송사에 제작협찬이 허용되었다. 2008년도에 맞이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점차로 위축되던 방송광고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는 광고주로 하여금 광고비 집행 전략의 전환점을 제공해주었다. 프로그램 전후 광고에 비해 보다 광고효과가 높다고 판단한 프로그램 내 광고(PPL, 간접광고, 중간광고 등)를 보다 더 선호하게 되면서 드라마제작자들은 기업의 스토리를 드라마에 적극적으로 차용하면서 제작협찬을 유치하는 전략을 사용하였고, 특히 남자주인공의 직업을 제작협찬으로 연결하는 사례가 증가[18]하였다. 따라서 드라마작가들은 소재를 개발하거나 대본을 집필하기 이전에 제작협찬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직업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면서 직업군을 묘사하여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자주인공은 전문직업을 가지고 사랑에만 매달리는 생활인으로 그려지기보다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진면목을 몸으로 직접 체험해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2. 스토리의 배경에서 갈등의 중심 원인으로의 변화

방송드라마에서 주인공의 가족 관계 설정과 함께 직업 설정은 드라마의 배경은 물론 갈등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인공의 직계가족 관계 구성, 주거 환경, 주인공 직업과 동료 직원의 설정, 직업과 관련된 업무 영역 등은 남녀주인공이 해결해야 하는 사랑, 사건, 그리고 갈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장치이다. 시대별 분석대상 드라마들의 기확안과 대본을 검토한 결과, 주인공 직업은 단순한 스토리의 배경 설정 기능으로부터 드라마의 주요한 사건과 갈등을 구성하는 기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드라마 유형이 멜로드라마 중심으로부터 장르성이 강화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함의를 지닌다.

1990년대 시청률 상위 드라마들에서는 전문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자주인공이 재벌인 경우가 많았는데, <사랑을 그대 품안에(1994)>를 기점으로 재벌 남자주인공과 서민 여자주인공이 서로 사랑에 빠지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인기를 끌게 된 것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드라마 <마지막 승부(1994)>나 군대 병영을 소재로 한 <신고합니다(1996)>의 성공으로 인해 새로운 직업군은 더욱 적극적으로 드라마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직업에 따른 주인공의 캐릭터 차별화나 직업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스토리에 끌어들이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아들의 여자(1994)>에 나오는 여자주인공 김채원은 음악가였지만 자신을 배신한 남자주인공과 그 집안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드라마의 주된 갈등이었고, <별은 내 가슴에(1997)>의 여자주인공은 디자이너였지만 고아 출신의 역경을 딛고 성공하는 전형적인 캔디형 여성으로만 묘사되었다. 방송MC인 언니와 CF모델인 동생이 재벌2세 남자주인공을 두고 경쟁하는 <신데렐라(1997)>는 케이블TV가 활성화되던 시기에 제작되면서, 영화와 방송계 종사자를 남녀주인공으로 설정했지만, 결국은 한 여자를 둔 두 남자의 삼각관계와 한 남자를 사이에 둔 자매의 삼각관계의 사랑을 묘사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문직업은 화면상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만 활용되었다. 세 드라마의 여자주인공은 모두 전문직 종사자였지만 직업이 인물의 캐릭터

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이나, 스토리에 잘 스며 들지는 못하였다. 광고대행사가 등장했던 <질투(1992)>, 항공기 조종사가 주인공이었던 <파일럿(1993)>, 재벌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사랑을 그대 품안에(1994)> 등도 전형적인 트렌디드라마로서의 특성을 보여주었고, 직업은 스토리의 배경으로만 묘사되는 경향이 강했다. <아들과 딸(1993)>의 여자주인공 '후남'은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집안에서 남자 쌍둥이 '귀남'에게 밀려 차별받으면서 홀로 대학까지 공부해 국어교사 겸 작가가 된 캔디형 여자주인공의 전형성을 띠지만, 역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묘사가 부각되지는 못했다.

2000년대 드라마 속 남녀 직업 계층의 분포는 1990년대보다 더욱 다양해졌다. 특히 재벌2세나 전문경영인으로 설정된 남자주인공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대체로 이성적이고 냉철하지만 199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에 솔직하면서도 감성적인 성향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과거 거부장적이고 딱딱하기만 했던 인물들의 성향이 점차적으로 약화되었고 능동적인 사랑 표현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가을동화(2000)>의 호텔 막내아들 한태석은 직원인 은서에게 솔직한 표현으로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는가 하면, <궁(2006)>의 황태자 이신은 황태자비로 책봉된 신채경에게 너무 차가우리만큼 냉철하게 대하던 극 초반부터는 달리 후반부에는 신채경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서 굉장히 감성적이고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시기는 여자주인공 중심의 드라마가 많아졌다. <인어아가씨(2002)>의 경우처럼, 남자주인공이 있더라도 전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이 여성인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경쟁 사회로의 변화가 심화되면서 착한 여자와 악한 여자 간의 경쟁을 통해 사랑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치열하게 생존경쟁하는 이야기가 많아졌다. <미스터 Q(1998)>를 시작으로 <진실(2000)>의 방승리포터, <이브의 모든 것(2000)>의 앵커, <라이벌(2002)>의 골프선수 등 전문화된 직업을 가지면서 동시에 주체적이면서도 야망이 큰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사랑의 쟁취와 생존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 더불어 불치병과 근친상간 관계를 설정하여 청순가련형의 여자주인공을 등장시킨 멜로 장르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드라마(2000년 <가을 동화>)가 공존하는 시기였다.

2000년대 여자주인공의 직업은 1990년대와 같이 디자이너, 아나운서, 앵커 등의 여성적인 직업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부 기자, 밀가루에 범벅이 되는 투박한 파티셰, 변호사, 보디가드 등으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전문직 여자주인공을 다양하게 그려내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여자주인공들의 직업은 하나의 배경 설정이나 장치일 뿐 직업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남자주인공의 사랑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당시 사회 현상으로서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를 방송 드라마가 반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여성의 주체적인 직업인의 모습을 그리기보다는 1990년대와 마찬가지로 피상적인 수준에서 드라마의 배경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0년대 시청률 상위를 기록한 드라마들에 등장하는 남녀주인공의 연령층은 20~30대가 주류를 이루면서 보다 특화되고 전문화된 산업에 종사하는 캐릭터들이 많아졌다. 검찰총장, 검사, 정치인, 의사를 비롯하여 배우, 가수, 예능PD, 큐레이터, 잡지사 편집장, 스타트우먼, 경찰, 군인 등의 다양한 직업세계는 직업군이 단순히 드라마 스토리의 배경으로서의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토리의 중심이 되면서 일과 관련된 핵심 갈등이 발생하고, 그 사이에 조력자로서의 여자주인공과의 사랑이 혼합되는 방식의 플롯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드라마들은 남자주인공이 중심이 되는 스토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제빵왕 김탁구(2010)>, <시크릿 가든(2011)>, <별에서 온 그대(2014)>, <용팔이(2015)>, <프로듀사(2015)>, <편지(2015)>, <태양의 후예(2016)> 등의 드라마에서는 남자주인공의 성공 의지, 명예, 질병과 같은 약점, 가정환경에서 비롯되는 현신 등이 핵심스토리가 되면서 직업세계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갈등이 형성되는 드라마들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연속극이 시청률 상위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남녀주인공이 전문직업인으로 등장하면서도 미니시리즈 드

라마에서처럼 직업의 세계가 치밀하게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2000년대 이전보다는 남녀주인공 모두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모습이 세심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또한 여성 대통령을 등장시킨 <대물(2010)>, 남녀주인공의 영혼이 바뀌는 소재를 다룬 <시크릿 가든(2010)>, 최고의 여배우와 더불어 외계인을 등장시킨 <별에서 온 그대(2014)>, <용팔이(2015)>의 천재 외과 의사, 방송국 예능PD 이야기를 다룬 <프로듀사(2015)>, 여자 경찰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미세스 캅(2015)>, 검사들과 정치권력과의 이야기를 다룬 <편지(2015)> 등의 드라마들은 멜로드라마 위주였던 우리 방송드라마 환경이 점차로 전문직업이나 특수한 소재를 다루는 장르드라마의 성향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만큼 전문직업에 대한 묘사는 스토리 구성의 중심 요인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강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시청률 5위 이내의 드라마 125편에 등장하는 276명의 남녀주인공 배역의 직업 분석을 통해 우리 방송드라마의 변화 양상과 직업이 드라마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시대별 남녀주인공의 직업은 다양해지고 있었으나 최근 남자주인공의 직업군은 전문직이나 전문경영인, 그리고 경찰 등의 특수 성향의 직업으로 특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시기에 직업이 드라마 스토리 구성의 배경으로 기능한 반면, 최근에는 직업의 세계를 세세하게 묘사하면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갈등을 구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멜로 장르의 드라마가 주류를 이루던 우리 방송드라마 환경이 점차 의학 드라마, 범죄수사 드라마, 정치 스릴러, 판타지 드라마, 전문직업 드라마와 같이 다양한 장르적 특성들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3]의 내용과 같다.

표 3. 시대별 상위 시청률 드라마의 직업 분포 변화

구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남녀주인공의 중심	남녀 간 멜로드라마	여자주인공 중심	남자주인공 중심
전문직업의 변화	전문직업의 등장	직업 분포의 다양화	전문직업과 문화예술 직종으로의 집중
직업에 대한 묘사	직업을 가진 생활인	주체적인 직업인 묘사의 증가	전문직업인의 세계
직업 활용 방식	직업은 드라마의 배경(멜로드라마 위주)	여성 간 갈등 증가	직업이 갈등에 영향(장르 성향 강화)

우리 방송드라마는 1990년대에서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여자주인공 중심 드라마에서 남자주인공 중심 드라마로 변화해오고 있다[13]. 1990년대의 드라마들이 남녀주인공 간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멜로드라마의 성향이 강했다면, 2000년대 드라마들은 여자주인공 간 경쟁을 통해 사랑과 성공을 쟁취하는 구성을 가지는 경향이 강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슈들이 강하게 부각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여인천하(2001)>, <대장금(2004)>처럼 남성 취향의 드라마 장르에서도 여자주인공이 부각되는 드라마가 크게 성공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전문직종이 드라마에 등장하면서도 남녀주인공들은 직업을 가진 생활인으로만 그려지던 경향이 점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의식과 목표의식, 사명감을 가진 투철한 직업인으로 그려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드라마는 장르 성향이 강한 소재의 드라마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유행했던 트렌디 드라마는 당시 유행했던 직업군들을 드라마에 등장시키면서도 사랑에만 집중하는 남녀주인공을 묘사하였다. 2000년대에는 전문직업들이 보다 다양해지면서 직종의 특성들이 스토리에 반영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자주인공들은 사랑에 매달리는 모습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201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직업의 세계를 그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드라마의 핵심 소재로 다루는 드라마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 방송드라마가 점차로 장르 드라마로 진화해가고 있다는 함의를 지닌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다양한 직업군을 배경으로만 처리하는 것과

는 달리, 장르드라마에서는 직업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세심한 묘사를 통해 현실감을 극대화시키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묘사되는 갈등에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결국 제작진이 직업에 대한 철저한 자료조사와 높은 이해 없이는 양질의 드라마를 제작해내기 어렵다. 직업의 세계로부터 전개되는 드라마들이 높은 논리적 내러티브와 치밀한 영상미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전문직업에 대한 작가의 전문성이 필요조건이고 높은 제작비와 오랜 제작기간이 충분조건으로 수반되어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이다. 따라서 향후 드라마작가들의 전문화, 드라마제작사들의 전문화, 연출자들의 전문화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과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시청률 상위 5위 이내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직업이 드라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작품들 중에는 미니시리즈뿐만 아니라 일일연속극, 주말연속극, 대하드라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드라마 유형별 직업과 스토리 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보다 세분된 시기 구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세세한 추세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추후 연구를 통해 드라마 시기 구분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변수들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드라마 발전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강익희, 하운금, *텔레비전에 나타난 직업의 성정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2001.
 [2] 박신영,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직업묘사와 고정관념*,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3] 정영희,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동시대 지형과 역사성,”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1호, pp.84-108, 2009.
 [4] 박나경, *한국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남성상 연구: 현대 멜로드라마의 남성상 왜곡 현상 고찰*, 중

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5] 김순기,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주인공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6] 박은하, “텔레비전 멜로드라마의 이야기구조와 남녀주인공의 특성: 방송3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pp.48-59, 2014.
 [7] 김훈순, 김미선, “여성담론 생산의 장으로써 텔레비전 드라마: 30대 미혼여성의 일과 사람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2권, 제1호, pp.244-270, 2008.
 [8] 이효성, 홍원식, “드라마 속 여성등장인물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고찰: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비교,”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제22권, 제3호, pp.75-96, 2014.
 [9] 최현주, “텔레비전 드라마에 묘사된 성역할의 전도와 그 함의: 남성 전업주부 드라마 <불량주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2권, 제4호, pp.401-438, 2008.
 [10] 이화정, “멜로장르 TV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주인공의 전형성(1992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pp.604-613, 2013.
 [11] 양문희, 강형철, “텔레비전 드라마의 직장 내 여성 관리자 및 경영자 묘사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9권, 제5호, pp.95-123, 2006.
 [12] 이원, “2000년대 전문직 드라마의 특징과 발전양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1호, pp.68-75, 2012.
 [13] 노동렬, “인기 TV 드라마에서 질병을 활용하는 방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8호, pp.351-365, 2017.
 [14] C. G. Heilbrun, *Human sex-role behaviour*, New York: Pergamon Press, 1981.
 [15] D. D. Bielby and W. T. Bielby, “She works hard for the money: Household responsibilities and the allocation of work effor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3, No.5, pp.1031-1059, 1988.
 [16] M. Anderson, *Thinking about women: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ex and gender*, 이

동원, 김미숙 역, *성의사회학*, 이화여대출판부, 1993.

[17] R. J. Harris, *A cognitive psychology of mass communication*,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9.

[18] 노동렬, *방송산업의 비극*, 부키, 2015.

저 자 소 개

노 동 렬(Dong-Ryul Roh)

정회원



- 1986년 2월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사)
- 1988년 2월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석사)
- 2014년 8월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관심분야> : 방송산업, 방송콘텐츠